



로즈 박씨가 진행자로, 도창회 수필가(前 동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관 스님의 시집 <바지선 기러기>를 논평하는 시간도 있었다.

사진=노덕현 기자



비보이 댄서 김중완씨의 3명이 출연해 난타와 어우러진 비보이 춤을 선보였다.



한지조형 설치작가이자 시인인 로즈 박씨가 지상 생명을 상징하는 불씨를 되살려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눈앞 어른거리는 아이들”... 희생자 추모하고 반성을

## 진관 스님, 시집 출간 기념 및 세월호 1주기 추모 콘서트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갑갑하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이 모여 어느새 일 년이 지난 것이다. 불교계는 참사 직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봉사단을 파견해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도 지난 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수차례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낮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를 같이 했고 다섯 차례 바지선에 올라 희생자 시신 수습현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당시 진관 스님은 현장에서 느꼈던 고통과 참담함을 시 108편에 고스란히 담아 시집 <바지선 기러기> (한강 펴)를 최근 펴냈다. 그리고 24번째 시집 출간을 기념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 ‘바지선 기러기 북콘서트 토크쇼’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김정훈·이인제 국회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구성됐다. 1부 행사는 ‘바지선 기러기 다시 불꽃이 되어’로 스토리가 있는 무대공연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자인 박수빈씨의 2명이 신나는 난타공연으로 객석의 분위기를 신명나게 했다. 이후 비보이 댄서 김중완

씨의 3명이 등장해 난타와 어우러진 비보이 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과 학생들의 들뜬 모습을 연출했다.

이윽고 구슬픈 멜로디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즐거운 여행길에 나선 아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조난 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아이들은 생명을 잃고 세상은 슬픔에 잠긴다. 곧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은 지상의 수호하는 정령이 되고, 비보이 댄서들은 이 과

진관 스님 24번째 시집 <바지선 기러기> 팽목항서 봉사하며 느낀 점 담아내 희생자 추모하는 퍼포먼스 마련 “이 같은 아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정들을 온 몸으로 표현했다. 잠시 후, 한지조형 설치작가이자 시인인 로즈 박씨가 대자연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흰 빛깔의 옷을 입고 나타나 고통에 잠긴 영혼을 달래듯 비보이 댄서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진다. 그리고 나서 PVC 비닐로 만든 대형 풍선 안으로 들어가 지상 생명을 상징하는 불씨를 되살려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3부에서는 또한 소프라노 최승은 명지대 교수의 공연과 법산·원명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 ‘바지선 기러기 북콘서트 토크쇼’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김정훈·이인제 국회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진관 스님의 시 ‘6월의 비’를 낭송했다.

인사말에서 원명 스님은 “진관 스님은 이 세상에 고통 받는 무생명들에 관심이 많다. 스님은 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시며 많은 노력을 한다”며 “진관 스님의 이번 시집은 세월호 참사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은 인류에

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슬픔을 잘 담아내서 시집으로 펴낸 진관 스님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3부 오픈 토크쇼는 로즈 박이 진행자로, 도창회 수필가(전 동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관 스님의 시집 <바지선 기러기>를 논평하는 시간도 있었다.

진관 스님은 시집 제목을 <바지선 기러기>로 정하게 된 연유에 대해 “기러기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동지를 생각한다. 함께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대원들 가운데 병든 기러기가 있거나 인간들이 쓴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 기러기들은 죽거나 다친 기러기와 함께 하강해 그 기러기의 병을 치유하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고 다시 날아간다”며 “우리도 기러기의 협동심을 배워야 한다. <바지선 기러기>는 협동심이 부족한 인간들을 경고하기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진관 스님은 아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 스님은 도움이 필요한 역사적 현장에 항상 계셨고, 인권·통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며 종교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번 시집도 그 흐름 속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108편의 시에는 세월호 사건이 결국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생긴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스님은 이런 사건을 기러기라는 동지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자본가 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도창회 교수는 “진관 스님은 바지선에 직접 올라 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과 슬픔으로 시를 썼다. 스님의 이번 작품을 참여시라고 구분짓기 보다는 직접 사건을 목도(目睹)하고 썼기에 관조(觀照)의 서정

시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그리움과 아픔과 눈물을 고스란히 시로 표현한 스님의 작품을 읽을 때 가히 눈물 없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4부 시낭송에서는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진관 스님의 시 ‘6월의 비’를 낭송하기도 했다.

팽목항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농민들은 춤추는데/ 세월호가 누워 있는 진도 앞바다는 눈물로 내리는 6월 비/ 지금 당장에 멈추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 어딘가에서 하소연하는 바다가 되었다/ ... (중략)~/ 비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내릴 것이냐/ 내 눈앞에 어른 거리는 귀여운 아이들/ 금시라도 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날/ 내 안에 있음을 기억 하겠다 말해도/ 내 안에 없으니 슬픔만 남았구나

이날 추모 콘서트를 관람한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통감하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현 씨(45·여)는 “신나는 난타와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동작이 갑자기 슬픈 곡조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때는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며 “오늘 1주년을 맞이한 한 달간 추모기간동안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지역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돼서 다시는 그 아픔이 일어나는 일을 막자”고 사부대중에 당부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한영대역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성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예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힐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한영대역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 글, 그림 || 구나파유타 (태국)
- \* 영역 || 呂麗安 (Z. A. Lu)
- \* 한글 번역 || 이순임

몇 년 전, 중국어와 영어로 된 이 책자를 보고는, 우리나라의 불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붓다의 일대기를 꼭 읽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大玄 합장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55) 972-1109  
010-9772-4588

우리보리나무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